

30CUP 1, 2차 수련회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중정”



주님의교회 30대 사역팀에서는 6월 2차례의 수련회를 가지게 된다. 1차수련회는

17-18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열리는 30대 부부를 위한 수련회

이다. 자녀 양육, 분주한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소홀히 했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들로 준비된다. 주일에는 남양주에 있는 길가에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24-25일에는 강원도의 돌담집에서 전체 수련회를 갖는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다.

30집 예배가 있는 셋째주일인 18일에는 예배장소를 변경해 지하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중정에서 예배하게 된다. 찬양 Festival로 드리게 되는 6월 30집 예배는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은 물론 CCM 아티스트 [옥합]을 초청해 함께 예배드릴 예정이다.

문의: 이강우 총무 010-9016-0651

(1면에 이어서)

길가에교회 소식

“새로운 터전위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새가족 환영



교회학교 아동부

처음교회에 온 찾아온 사람들은 5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본인이 등록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또 지난 5월 길가에교회 중앙입구 현관에 ‘길가에교회’

라는 이름판을 달았다. 평소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이 어떤 곳

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교회는 동화중고등학교와의 협의 후에 아름답게 디자인된 교회 이름을 달게 되었다.

제2여선교회 나들이

“새로운 회원들과의 친숙함의 장 마련”

6월이 시작 되는 첫째 목요일, 제2여선교회원들은

과천 대공원에서 야외모임을 가졌다. 수은주는 여름의 문턱답게 29도까지 올라갔지만, 대공원의 숲 속은 별세계처럼 시원하고 상쾌했다. 임원들의 빈틈없는 준비로 맛있는 점심을 마친 여선교회원들은 찬양을 부르며 간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누었다.

이 모임은 새로운 회원들과의 친숙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제2여선교회는 1948~51년생의 여성회원으로 이루어진 예배와 봉사 그리고 친교 모임이다.

오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부 전도예배 1주년

오늘의 순서

영상-1년을 돌아보며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현 동덕여대 교수)
해금연주 최남영(경기도립 국악원 상임단원)
인사-문동학

when_2006년 6월 11일 오후2시
where_주님의 교회 대강당(2F)

오늘 기도



주님!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2006.6.4

(1면에 이어서)

의료선교부, 캄보디아 선교여행

“선교여행을 위한 교우들의 참여와 기도후원 요청”

이번에 구성될 의료선교단은 한윤경장로를 단장으로, 정희성 목사가 함께 동행하며 총 30여명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와 진료료를 도울 지원팀이 참여하게 된다.

의료선교팀은 현재 내. 외과 계열 의료인 2-3명과 약사, 간호사, 현지주민들에게 이·미용

으로 봉사할 사역자들, 그리고 그 밖의 봉사로 캄보디아 지역 주민을 섬길 교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 참가비는 왕복 비행기 요금수준인 약70만원 정도이다.

문의: 김학원 집사 011-9769-6937

2006 교구 수련회

- 1교구 _ 7월 21-23일 다윗동산(마석)
- 2교구 _ 7월 21-23일 정동수양관(마석)
- 3교구 _ 7월 16-17일 다윗동산(마석)
- 4교구 _ 7월 16-17일 말씀의 집(강화)
- 5교구 _ 7월 21-23일 진새골 사랑의 집(경기 광주)
- 6교구 _ 7월 16-17일 다윗동산(마석)
- 7교구 _ 7월 16-18일 이대수양관(수안보)
- 8교구 _ 6월 17-18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서울)
6월 24-25일 토담골(가평)
- E·M _ 7월 14-16일 양평수양관(양평)

‘희망의 뜨락’,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 영아부 _ 7월 9일 교회
- 유아부 _ 7월 22-23일 교회
- 유치부 _ 7월 29-30일 교회
- 썩트네 _ 8월 19-20일 교회
- 유년부 _ 7월 23-25일 안성엄마농장
- 초등부 _ 7월 24-26일 양평관광농원
- 소년부 _ 7월 21-23일 양평관광농원
- 레인보우 _ 8월 13-15일 안성엄마농장
- 중등1부 _ 8월 3-5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 중등2부 _ 8월 10-12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 고등부 _ 7월 31일-8월 2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통권 제 175호

발행일 : 2006년 6월 4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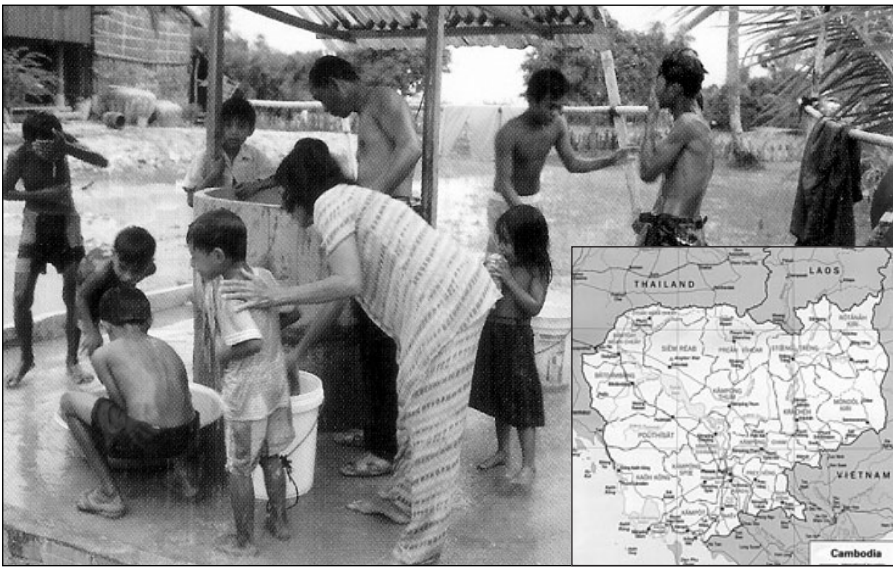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캄보디아 의료선교봉사

“선교여행을 위한 교우들의 참여와 기도후원 요청”



다년간 주님의교회에서 캄보디아 의료선교를 수행해온 의료선교부는 올해도 변함없이 캄보디아의 하계진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선교지역은 캄보디아의 다게오 지역이며 8월 13일(주일)을 전후하여 약 8일간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다게오 지역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에 떨어진

지역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다. 지난 2월 7-11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주님의교회의 당회대표단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의료사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하기 봉사는 공동 사업의 원년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하에 그곳의 장기선교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주님의교회는 그 곳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곳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여러 지역을 찾아 병원을 세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현지 크리스찬 의료인력을 교육, 훈련시킬 교육 기관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면에서 계속)

방과후학교 특별활동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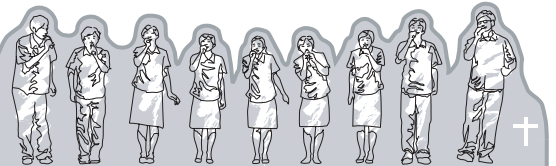
방과후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캔두코 공연단의 장애/비장애인 공동작품을 관람했다.

캄보디아 우물 선교팀 모집

3면

‘희망의 뜨락’ 영아부, 유치부

3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교사수련회						정기당회
오늘1주년 감사예배	11	12	13	14	15	16
30집예배	18	19	20	21	22	23
창립기념음악회						30집수련회
24	25	26	27	28	29	30
창립기념주일		선교부총회				

길가에교회 소식

“새로운 터전위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지난 12월에 주님의교회에서 번식한 길가에교회(이인호목사)는 새로운 터전에 점차 안정을 찾아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예배와 주일 학교교육 그리고 학원선교와 봉사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길가에교회는 이제 주님의교회에서 파송된 성도들뿐 아니라 현지의 주민들도 한 명 한 명 찾아오고 있다. (4면에서 계속)

나눔의 물품을 모아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밝은 웃음조차 버거운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작아서 못 입는 의류와 신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도서와 장난감 등등
그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창고에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나눔의 물품을 모아주십시오.
꼭 필요한 곳에 전하겠습니다.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 시 : 6월 11일
장 소 : 1층 로비
주 관 : 복지선교부

4부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대합니다.

1. “Cinema Paradise Love Theme” _ 오늘 연주팀
2. “사랑한다” (현대무용) _ 최경실(경희대 강사)
3. “사랑을 잃다” (아가서8:6-7) _ 이호 목사
4. “L.O.V.E(Natalie Cole)” _ 오늘 연주팀

오늘 예배에서는 사랑과 상실에 대하여 다루게 된다. 사랑을 집착이나 소유의 관계로 볼 때 서로를 병들게 함을 깨닫는 과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실을 극복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사랑을 잃다”라는 주제를 드러지는 오늘 예배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현대무용을 통하여 보여 줄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아픔을 경험한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고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메세지를 통하여 전달 받게 된다.

Misson 함줄함물,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
마련되었습니다.” (×)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빈곤국가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세계보건기구에 몸을 바친 그의 사망소식에 세계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자의 말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빈소'는, '관을 놓아두는 방'으로 고 이종욱 님의 빈소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반면 '분향소'는, "고인의 사진 등을 두고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곳"으로, 빈소와 상관없이 여러 곳에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분향소는 UN 본부에, 서울대학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무지개 사진전]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2주일간의 짧은 일정에 모든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2006년 4월 초, '주님의교회 사진부' (부장:최재호 집사)가 출범하였다. 사진부는 [주사동]회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주사동]이란 2005년도 양육과정 중 '사진학교 1, 2기' 수료생 20여 명이 모여서 만든 '주님의교회 사진동호회'를 말한다. [주사동]은 매달 2회씩(1, 3주 토요일) 정기출사를 가고 당일 오후 품평회와 사진강의의 시간을 갖는다.

2006년 5월 5일, [제4회 무지개축제]가 열리면서 드디어 [사진부]회원들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왔다. 10여 명의 회원들은 아침 8시부터 모여 연두색 조끼와 이름표, 장비를 점검하고 각자가 맡은 촬영분담 장소로 투입되어 사진을 찍었다. 전체 사진 수는 7~8천매나 되었다. 필름이 필요 없는 디

지털 카메라의 위력이었으나 고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오랜 과정 끝에 10% 선인 800매 정도로 추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무지개사진전]을 마련하여 그 날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로 했다.

보통 '사진전시회' 하면, 선별된 작품 30~50매 정도만 전시한다. 그 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무지개 사진관은 800매의 사진이 전시되는 대형 사진전이 되었다.

장소는 1층의 양쪽 복도로 결정되었다. 회원 각자가 전시를 위해 일을 분담하기로 하고, 교회에서는 지하층에 있던 조명기구를 1층 복도로 옮기는 공사를 맡았다. 비상사태에 돌입한 사진부는 2주일간의 짧은 일정에 총동원되었다. 포스터제작, 인쇄, 트리밍(재단) 등 모든 회원들의 땀과 수고가 집결했다. 2006년 5월 27일, 아침 8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무지개사진전]이 시작되었다. 지난주일 많은 성도들이 복도를 오가며 전시된 사진을 관람하며 무지개 축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즐거워했다. 이번 전시는 6월 4일 주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사진부' 일은 거기에서 끝날 수 없다. 전시회가 끝나면 신청 받은 사진을 분류하고 원본을 대조, 빠짐없이 인화하여 다음 주일에는 신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무지개 사진전]은 주님의교회 안에 새롭게 시도된 아름다운 사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교회사진사역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문의: 최재호 집사 / 016-620-8279

하프타임강좌

금융동향과 재테크



김성운 집사

5월 30일(화) 하프타임 강좌는 김성운 집사(전, 조흥은행 부행장)의 강의로 1시간 40분 동안 열렸다.

자산의 3분법(유가 증권, 부동산, 예금), 재테크의 년도 별 추세 등을 그래프로 보여주며 향후 재테크의 합리적 방법에 대하여 강의했다. 합리적인 재

테크는 1)대출금 상환2)절세 상품 가입 3)고금리 상품을 가입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 공제 혜택과 같은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한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참석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주와 함께 일하며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행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는 김집사는 돈을 버는 것, 재테크를 활용, 부를 축적 하는 것이 결코 수치가 아니라고 전하며 이를 통해 대사회봉사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6월 6일은 하프타임 강의가 없으며 6월 13일 “음식과 건강”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비디오 촬영
봉사자 모집

교회기록보존위원회에서
비디오 촬영에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김홍용안수집사 (011-272-6643)

방과후학교 국제현대무용제관람

“다리 없는 무용가의 아름다운 몸짓”



방과후학교에서는 지난 27일(토), 국제현대무용제, 2006 MODAFE (Th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Korea)가 열리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해외초청작인 CandoCo Dance Company의 공연을 관람했다.

캔두코 댄스 컴퍼니(영국)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 높은 수준의 전문 무용단이다. '할 수 있다-Can Do'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룹명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적인 작품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제현대무용제에서는 캔두코 댄스 컴퍼니의 작품 중 격정적이고 유쾌한 춤인 '여정' (The Journey, 안무/Fin Walker)와 연극적 요소가 강하게 배어있는 '어리석음을 찬미하여' (In Praise of Folly, 안무/Athina Vahla)의 두



장애인 무용수를 그리는 학생

작품이 공연되었다. 작품에는 하반신이 없거나 마비된 두 명의 무용수와 5명의 비장애인무용수가 등장했다. 작품을 관람한 학생들은 무엇보다 다리가 없는 장애인 무용가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전율을 느꼈으며 그가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필요치 않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훈련된 몸의 움직임이 다른 무용수들보다 더 아름답고 힘 있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주차협조

“이곳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과 강당 북쪽 통로의 불법주차 여전



함글함글의 계속되는 협조부탁에도 불구하고 평일오전 교회 주차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주차장의 비장애인의 이용이 계속되고 있고, 강당 북쪽 좁은 통로 역시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지장은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평일오전 교회를 오는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교회의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주차안내부 야외모임

“봉사하는 한 주 한 주, 은혜 더욱 깨닫는 시간으로”

차량안내부에서는 5월 28일(일) 3부 예배 후 상암오토캠핑장에서 야외모임을 가졌다. 찬송가 78장(참 아름다워라)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했다. 차량부를 담당하는 박의일 목사는 기도를 통해 여러 힘든 환경 속에서도 봉사하는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전날 내린 비로 하늘은 더욱 맑았으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서로를 격려했다.



희망의 트랙, 영아부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가요”



영아부 예배는 3부 예배 시간인 11시 30분부터 지하 1층 식당 입구에 앞쪽에 위치한 영아부실에

서 진행된다. 만2살 미만의 어린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훈련받고 부모들은 이 시간에 장년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너무 어려 부모와 떨어지기 힘들어 하는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사람이 영아부 예배에 같

이 참여하길 권하고 있다.

영아부 예배는 찬양과 울동, 기도, 말씀 듣기, 간식시간, 반별 공과(때로는 특별활동), 울동(체조)으로 진행된다. 이때 영아부 모든 교사들은 반복적인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큰 기쁨과 보람을 가슴 한가득 느낄 수 있다고 올해 처음 교사를 맡은 최호성 집사는 전한다.

영아부의 당면한 문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늘어나는 영아들을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매주 평균 95명 이상(영아 40여명과 부모 30여명 그리고 영아부교사 20여명)이 같이하기엔 공간적인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접하고 있어 환풍기가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교사와 부모를 당혹스럽

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배환경은 열악하지만 영아부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전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교사월례회에서는 예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6월에 있을 교사수련회 준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눈 후 영아들은 물론 교사들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단원 모집



일 정 : 2006년 7월 26일~8월 2일
경 비 : 80만원(항공료및숙박)
인 원 : 25명
신청및문의처 : 장일형집사(팀장)
Tel : 019-240-6815
E-mail : ereindustrial@yahoo.co.kr

▶ 이번 여름휴가철을 이용하여 우리교회에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 이번 선교 여행의 주 임무는 아시아에서 가장 식수문제로 고통을 받는 나라중 하나인 캄보디아에 “먹는 우물 파주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 이번 여행기간중 먹는 우물 5개를 파서 식수문제로 고통을 받는 현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데 작은 힘이 될것입니다. 관심있는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 좌석 관계로 인원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사진전

6월 4일 1층 복도



희망의 트랙, 유치부

“자주 야외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유치부는 5월 마지막주 일날 아시아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전날까지 비가 온데다 주일까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걱정을 했었지만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은 화창한 날씨를 선물로 받았다. 유치부어린이들은 교사들이 준비한 물풍선과 종이비행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



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던 어린이들은 한목소리로 야외예배를 자주 드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